

/지역 단신/

19일까지 '가야산 큰골 영화한마당'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가야산 큰골 영화한마당'이 16일부터 4일간 광양시 광영동 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첫날인 16일 식전행사에 이어 17일에는 최신작인 '캐리비안의 해적'이 상영되고, 18일에는 '태풍',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국경의 남쪽'이 상영된다.

정성기 가야산 큰골 영화한마당 추진위원장은 "이 행사를 통해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난해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순호기자 chkim@

목포해경 100t급 경비정 '텐텐운동'

목포해경이 100t급 경비정을 대상으로 10분만저출량, 10분 늦게 입항하는 '텐텐운동(TEN-TEN)'을 전개하고 있다.

텐텐운동은 유류소비가 가장 적은 경제 속도로 경비정을 운항, 기름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

실제로 RPM(엔진 평균 분당 회전수)1300으로 운항하여 경비구역으로 이동시에는 한 시간에 100ℓ 가 소모되는 반면, 10분 먼저 출항하여 RPM1100으로 1시간 10분을 이동하면 55ℓ 가 소모되어 45ℓ의 경제적 차이가 발생한다.

목포해경관계자는 "고유가시대 유류절약과 함께 완벽한 해상치안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도농기원 '초영마늘' 특산물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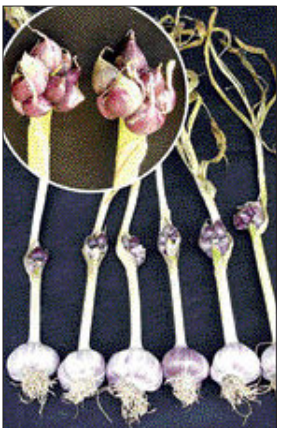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종대(마늘 한가운에서 나오는 줄기)가 나오지 않는 신 육성 품종 '초영마늘'의 조기 보급 및 특산물화를 추진한다. <사진>

이에 따라 2007~2008년에 조기 마늘씨 확보를 위한 실증시험을 하고, 2008년 9월께에 고흥, 해남, 무안 등 3개소에 시범재배 단지를 조성한다.

또 2009년까지 주산단지의 재배면적 확대를 지역 특화 브랜드화를 위한 상표등록 및 유통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초영마늘'은 도 농기원 이양성 연구사가 돌연변이 육종법을 이용해 개발한 신품종으로, 마늘 종대가 나오지 않으며 굵거나 찢겨주 찢지다.

/송기통기자 song@



담양 '산림소득사업' 농가 신청받아

담양군이 산림 자원을 활용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을 펼친다.

담양군은 조경수와 분재 생산을 비롯 고로쇠 조림과 호두와 대추 등 산지유실수, 산약초, 산나물 등 품목별로 전역 보조금 지원에서부터 보조와 용자를 통한 산림 소득사업을 벌인다.

또한 생산된 임산물의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에도 자금 보조와 용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농·임업 농가면 누구나 가능하고 오는 9월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 환경녹지팀(380-3082)으로 신청하면 된다.

/담양=차재화기자 jhw@

■ 무안·보성 "연꽃아 고맙다"



효자 관광상품... 알짜 웰빙식품

'연꽃'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과 꽃이나 잎, 연뿌리 등을 판매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부가가치가 높을까? 무안군이 매년 8월 회산 백련지에서 연꽃 축제를 개최해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주암호 상류인 보성군 북내면 작목반에서는 주암호 주변에 연을 재배,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백련대축제 입장료 수익만 1억 지역경제 파급효과 368억 달해

▲무안 회산백련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일요일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린 제 10회 무안 백련대축제에는 52만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입장료 수익만 1억1천370여만원에 달했다.

또 특산물·농산물·관광기념품 판매와 연음식 등 황토골 브랜드 운영으로 1억1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백련축제는 이같은 수익뿐 아니라 지난해 경우 관광객 1인당 4만199원원을 소비해 368억원의 간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 회산 백련지를 찾은 외지 관광객들이 인접해 있는 관광지도 연계 방문하는 등 전남 서남권 관광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축제 기간 동안 지역내 요식업소와 주유소 등 관련 업소들의 매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무안군 관계자는 "특히 회산백련지는 백련외에도 멸종위기 식물인 가시연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관광상품화외에 연 제품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북내 작목반 올 첫 연 판매 2억 쌀수익 3배 주암호 정화 효과도

▲보성 북내 작목반 보성 북내에 연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유정리 일대 4천 500평에서 시작된 연 재배는 올해 북내리, 유정리, 동교리 등 3만평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7만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재배에 나선 주민들은 올해 북내연작목반, 천마연작목반, 유정연작목반 등 3개 연농작목반을 결성, 주암호도 살리고 농가소득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내 작목반은 최근 차 애호가들에게 연잎 300kg을 kg당3천원에, 연꽃잎이 송이당 3천원에 팔았다.

주민들은 연 재배수익이 쌀 농사에 비해 3배에 달해 올 매출을 최소 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내면 관계자는 "올해 첫 판매인해도 기대 이상의 소득을 올린 만큼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며 "9월부터는 연차와 연가루 제품을 생산하고, 앞으로 부지를 확보해 연잎가공시설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군과 보성 북부농협은 공동 투자로 냉동고(50평)를 최근 준공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백련을 테마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무안 백련대축제(사진 왼쪽)와 보성군 북내면 연 재배단지.



"멍멍아, 나랑 같이 책 읽자!"

순천 '기적의 도서관'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 위한 이색 프로그램 마련 '눈길'



순천시가 개설한 보조견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시가 오는 9월까지 매주 1회씩 기적의 도서관 이야기 방에서 책 읽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멍멍아, 나랑 같이 책 읽자!'를 마련했다.

'멍멍아'는 부끄러움을 잘 타거나 고학년이면서도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해 본격적인 책 읽기가 어려운 어린이 6명과 잘 훈련된 골든리트리버 종의 '키스'라는 이름의 보조견이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우선 개와 친해지는 법부터 배웠다. 아이들이 그림책, 옛이야기, 모험 이야기로 등을 골라 책을 읽어주는 동안 '키스'는 읽어주는 아이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가끔씩 귀를 쫑긋거리기도 하고 눈썹이 찡그러지며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반응을 나타낸다.

6명의 어린이들이 돌아가며 책을 읽어주다 보면 예정된 시간인 1시간30분이 훌쩍 지나간다.

장승기(동명초 5학년) 어린이는 "키스에게 책을 읽어주게 하니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키스가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독서지도교사 12명과 수의사 또는 간호사 1명이 번갈아가며 참여해 아이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독서지도 방법을 제시해 준다.

독서지도 교사 유미애씨는 "어린이들이 흥미진진한 내

용을 개에게 읽어주다 스스로 책 속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또 "아이들이 처음에는 개에게만 관심을 보였으나, 책 읽어주기가 조금씩 진행되자 다른 친구들이 책을 읽는 동안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다 읽어준 책을 직접 다시 읽어보기도 한다"며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이면 스스로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는 어린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15일 오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를 피해 광주 광산구 송산유원지를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광산 송산유원지 '더위 탈출' 각광 물놀이장 등 생태공원화... 도시민 휴식처 자리매김

광산구 송산유원지가 새로운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광산구 송산구(구청장 전갑길)에 따르면 황룡강의 고수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1만2천평 규모의 인공섬인 송산유원지에 최근들어 2~3천명의 피서객이 몰리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

이처럼 송산유원지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유원지에 각종 물놀이 시설과 편의 시설이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산유원지에는 1천여평의 생태연못과 5개소의 야생조화원, 연꽃체험단지, 운동체육시설, 어린이 놀이 공간 등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또 8천여주의 각종 나무 등이 유원지 곳곳에 식재돼 주말이면 피서객들이 유원지를 가득 메워 광주시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광산구가 지난 6월까지 8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백m의 강변 탐방로에 심었던 배롱나무 6백여주가 나무인공 터널을 이루면서 연일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송산유원지에는 각종 화원이 인접해 아름다운 꽃들을 관찰할 수 있고, 동백나무, 홍단풍, 뽕나무, 자귀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등 여러 수목들이 식재되어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산구는 올해 나뭇배를 새로 도입하고, 종합안내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

미항 여수, 밤바다가 좋다

오동도 분수대·해양공원 등 볼거리 풍부·연일 피서 인파

불빛 더위가 땀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여수지역 주요 관광지에 알뜰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음악분수대로 유명한 오동도에는 무료 입장이 허용된 오후 7시 이후 하루 평균 2천500여 명이 몰리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음악분수대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 2천여 가지의 다양한 물을 내 뿜으면서 한여름밤을 수놓고 있다. 매 시간마다 15분씩 연출되는 분수들의 '공연'은 어린 아이를 동반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조성된 종화동 해양공원에도 매일 밤 1천여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고 있다.

이 곳에서는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해 미리 준비해 온 돛 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밤바다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또 수십여 명의 강태공들은 손끝에 전철오는 짜릿한 맛을 즐기기 위해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은 밤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등 유명 피서지 못로리던 종전의 피서 유형에서 벗어나 새롭게 정비되고 볼거리가 갖춰진 곳에서 알뜰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박남규기자 ykpark@

"경찰이 폭행 가해자 도주 묵인했다"

목포 30대 주장 논란

폭행사건 가해자를 출동한 경찰이 도주하도록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1시께 목포시 동명동 모 음식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고모씨(38·한평군 한평읍)는 30대 남자 2명과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으며 이들 중 1명만 붙잡아 출동한 지구대경찰에 인계했으나 감시 소홀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고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 측 남자가 아는 체를 하며 눈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보여졌으며 이 남자가 도주하기 위해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사라질

동안에도 경찰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또한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항의했으나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압포를 놓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면서 "경찰의 편파적인 직무집행으로 어렵게 붙잡아둔 가해자가 도주해버려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몰라 억울하게 피해만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출동했던 목포경찰서 여전지구대 정 모 경사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 적이 없고 더군다나 가해자와 아는 체 하는 것 같았다는 고씨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경찰 중에 참고인이 가버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movies

인기영화가 골자 골자 보실까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련연약국사거리 ☎예약1544-0600

배과 괴물 (12세/12세)	최고급관
2관 신데렐라 (15세)	
3관 몬스터하우스(전편)/게드전기(전편)	
4관 사랑하니까 즐찾아 (12세)	
5관 괴물 (12세)/다세포소녀 (15세)	
6관 건나는 여친의 완벽한 비밀 (15세)	
7관 마이애미 비이스 (18세)	
8관	
9관 각설탕 (전편)	

Megatizen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 (단 영화관외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매입권 무제한 공개 (매입지 7시부터 8시까지)

가족의 사투가 시작된다

괴물

9.9.19.20.21

주최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총장로 5가 ☎ 228-2700

1관 신데렐라 (15세)
2관 사랑하니까, 즐찾아 (12세)
3관 마이애미 비이스 (18세)
4관 괴물 (12세)/건나는 여친의 완벽한 비밀 (15세)
5관 괴물 (12세)
6관 다세포 소녀 (15세)
7관 각설탕 (전편)

8월17일부터상영 쿼트(22간)심야상영·극장 5시~9시(1인1부)

-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18:00분, 20:00분, 22:00분
- *매주 금요일 21:00분
-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중, 고생 1,500원 할인 (공휴일제외)

한반도

8월17일부터상영 쿼트(22간)심야상영·극장 5시~9시(1인1부)

월드영화인사망 ●예약:www.joybc.com/1588-7941

컬럼버스 시네마

이남철 상무점

해남점 (무영화관동면) 상무점 (상무영원동 이마트 사이)

1관 사랑하니까, 즐찾아 (12세)
2관 건나는 여친의 완벽한 비밀 (15세)
3관 신데렐라 (15세)
4관 마이애미 비이스 (18세)
5관 클라이 디드 (12세)/다세포 소녀 (15세)
6관 몬스터하우스 (전편/12세)
7관 괴물 (12세)
8관 각설탕 (전편)
9관 게드전기 (전편/12세)/다세포 소녀 (15세)
10관 괴물 (12세)

*휴일 최대 주차 ●배달상차 상영만 1588-7941

컬럼버스 해남점 (10:00) 전화 885

상당원권 발급 (1번/2번) ->

씨너스 광주 8개관

8月 초 오픈

T.383-3445~7

★남·여 직원 및 이트비이트 모집★

★상가임대문의★

T.(062)384-3535